

권력과 폭력의 결합... '괴물'로 변해가는 청소년들

film review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괴물들

실제 '학교폭력' 사건 모티브
2인자와 피해자의 충격적 선택
폭력을 폭력으로 상대한 재영

세대를 막론하고 대물림되고 있는 학교 폭력. 우리 사회의 표본이 고스란히 담긴 영화가 등장했다. 바로 영화 '괴물들'이다.

김백준 감독이 5년 동안 준비한 작품인 '괴물들'은 2011년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제조제 음료수 사건을 모티브 한 것으로,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생 재영(이원근)의 일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그린다. 제조제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간 1인자의 부재로 교내 권력을 움켜쥔 2인자 양훈(이이경)과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재영이 살아남기 위해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학창시절 같은 반에 꼭 한명씩 있는 친구들이다.

강자에겐 굴복하되, 약자는 짓밟아야



영화 '괴물들' 포스터



영화 '괴물들' 스틸컷



재미를 보는 교내 권력 2인자 양훈, 그리고 그의 오른팔 상철(오승훈), 그들에게 집요한 폭력을 당하고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소년 재영, 그런 재영이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재물 아닌 재물로 삼은 예리(박규영)까지. 각각의 인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을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캐릭터들이 폭력의 늪에서 살아갈 방식은 각기 다르다. 재영은 양훈의 부탁을 잘 들어주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훈의 요구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끝내 범죄의 영역에 다다른다. 양훈의 요구를 한 개라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동급생들이 보는 눈

앞에서 폭행을 당해야 하는 재영. 그렇게 괴롭힘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의 마음에도 어느새 괴물이라는 씨앗이 심어진다. 괴물이 되지 않으면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상황에서 재영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는 영화가 어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제조제 음료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김성균)가 던진 말이다. 그의 말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일반 상식을 대변한다. 하지만 피해 아이들이라고 해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을까? 학교에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아버지는

회사 승진에 눈이 멀어 있고, 어머니는 본인 얘기하시기 바쁘다고 영화 속 재영이는 이야기한다. 결국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재영이 도움을 요청할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10대 청소년이라면 아마도 폭력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복수'라는 것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내가 괴물이 되어버렸어..' 재영이만 봐도 그렇다. 복수라는 단어에 포장되어 있지만 재영도 역시 폭력을 폭력으로 상대해버리고 만다. 부모님과 의식에 양훈을 불러 핏기 가득한 고기를 계속해서 접시에 얹어 주는 장면 또한 양훈이 그동안 저지른 폭력을 지적하는 부

분. 결말로 치달을수록 괴물로 성장해가는 재영의 모습이 가슴 아프기만 하다.

약자를 대상으로 발현되는 폭력의 속성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의 굴레. 그리고 그 속에 만들어지는 처참한 비극. 풀 수 없는 폭력의 사슬에 묶인 순수한 청소년들이 변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담아내 뜨거운 울림을 선사하는 '괴물들'은 2018년 가장 의미 있는 작품으로 관객의 뇌리에 남게 될 것이다. 청춘노와르 '괴물들'의 러닝타임은 102분이며 청소년 관람 불가다. 3월 8일 개봉.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을 또 다른 '재영'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백준 감독).

韓패럴림픽 선수단, 내일 평창선수촌 입성

스키 등 5개 종목·선수, 임원 71명 대표팀, 6개 전종목에 총 83명 참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오는 3일 평창에 입성한다.

배동현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본진 71명은 3일 오전 11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평창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간다. 이날 본진에는 휠체어컬링을 제외하고 장애인 아이스하키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등 5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71명이 동행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 6개 전 종목에 선수 36명과 임원 등 총 8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입촌식은 오는 6일 오전 10시 평창선수촌에서 열린다. 휠체어컬링 선수들은 입촌식 당일 오후 8시 30분 평창에 도착



26일 오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불입 페스티벌'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열렸다. /연합뉴스

할 예정이다.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정식을 갖는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은 메달 각 1개와 동메달 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0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다. 한편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열린다. /김민서기자

정현, ATP 2주연속 8강행... '亞 톱랭커' 눈앞

〈남자프로테니스〉

26위 전망... '빅4' 앤디머리 앞설 듯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9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2주 연속 8강에 진출하며 '아시안 톱랭커'를 넘보고 있다.

정현은 1일(한국시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ATP 투어 멕시코오픈(총상금 164만2795 달러) 단식 2회전에서 에르네스토 에스코베도(123위·미국)를 완파했다. 정현은 1시간 6분 만에 에스코베도를 2-0(6-3 6-1)으로 제압했다. 상대에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다. 이날 승리로 정현은 이번 대회 8강 진출 선수에게 주는 랭킹 포인트 90점을 확보했다.

현재 1497점으로 랭킹 29위에 올라있는 정현은 다음 주 랭킹 포인트 1587점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최근 1년 사이에 출전



정현의 멕시코오픈 경기 모습. /연합뉴스

한 대회 가운데 랭킹 포인트에 반영되는 대회 수에 제한이 있어 실제 확보한 포인트는 1567점이다.

정현의 다음 주 순위는 26위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현은 세계 남자 테니스 '빅4' 중 앤디 머리(21위·영국)의 순위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남자 테니스 '빅4'는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노바크 조코비치(13위·세르비아), 머리다. 메이저 대회에서 세 차례 우승하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머리는 지난해 왼팔 부상을 당해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지난해 3월 초 확보한 ATP투어 두바이 대회 랭킹 포인트 500점까지 잃게 돼 세계 랭킹 21위에서 28위 아래로 밀려나게 된다. 이에 따라 머리는 현재 26위로 예상되는 정현보다 낮은 순위에 놓이게 된다.

정현은 이 대회 8강에서 패해도 니시코리(21위)와 격차를 불과 28점 차이로 좁힐 수 있다. 4강까지 오를 경우, 다음 주 랭킹에서 니시코리를 제치고 '아시안 톱랭커'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한편 정현의 멕시코오픈 8강전은 2일 열린다. /김민서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3월 2일

음력: 1월 15일

수도권 날씨

-6 ~ -5℃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7:03 | 해질 / 18:26

연천 -10/4, 동두천 -8/6, 가평 -11/5, 파주 -10/4, 서울 -6/5, 양평 -7/4, 인천 -5/2, 수원 -6/4, 용인 -6/4, 평택 -7/5, 백령도 -4/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사진)이 잉글랜드 FA컵 16강 재경기에서 전반 23분 선제골을 뽑아내며 46일 만에 다시 득점행진을 이어갔다.
- ▲ '원발의 달인' 염기훈이 올해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에서 개인 통산 100호 도움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 ▲ 이동국이 2018시즌 '1호골'의 주인공이 됐다. 울산 현대와 홈 개막전에서 골을 터뜨린 그는 K리그 개인 통산 203골을 기록, 자신이 가진 K리그 최다골 기록도 새로 썼다.

- ▲ 류현진이 1일 미국 애리조나 주 피오리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1~20닝을 던질 예정이었으나 감기로 인해 마운드에서 서지 못했다.
- ▲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오는 4월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아컵 본선을 한 달 앞두고 치른 모의고사 첫 경기 러시아전에서 3-1 역전승을 거뒀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화이트삭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올렸다.
- ▲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황희찬(잘츠부르크)이 3개월여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